

빈곤가족에서의 학령기 아동의 자존감 - 제주도내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

강 희 경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는 불이익 집단(disadvantaged population)을 보호하고 대변할 책임이 있다(Nelson, 1994). 사회경제적 요소인 빈곤은 건강상태를 좌우하는 유력한 결정인자이다. 즉,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은 결국, 보건의료의 혜택에 있어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Barra, 1998). 가난의 불가항력, 불평등의 가속, 불건강한 생활양식, 표준이하의 생활이나 작업상태 및 불량한 건강상태, 이들 관계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지 않는 한,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이들을 위한 건강증진 전략의 효과적 개발은 어려움이 클 것이다(Avand & Chance, 1994; Blackburn, Sorlie & Johnson, 1996; Hoskins & Lakey, 1997). 그러므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간호에 있어서도, 개인적 수준을 넘어 사회적 수준의 개념으로 빈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강희경, 1997).

이 사회의 가장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단위는 가족이다. 결국 가족체계를 안정되게 유지한다는 것은 이 사회를 안정된 체계로 유지할 수 있는 수순일 것이다. 가족은 그 안에서 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과 사회화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는 가족발달 단계에 있어서 학령기 자녀를 둔 가족에게 강조되고 있다(Antonovsky & Sourani, 1988; McLoyd, 1989; Olson & Lavee, 1989). 그러나, 빈곤 가족은 그 속성상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가족(multi-problem family)으로써, 자녀의 사회화와 관련된 훈련에 있어서 필요한 지적, 물

적, 정서적 자원들이 중류나 상류층의 가족에 비해 제반 자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취약하여(Huston, 1994), 이들은 자녀의 양육 특히, 학령기 아동의 사회화나 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야기된다. 결국 이들은 개인적이기에 앞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Amaya, Ackall, Pingitore, Quiroga & Terrazas-Ponce, 1977; Brown & Pollitt, 1996; Kisker, Howes & Whitebook, 1994; Phillips & Voran, 1994; Pollitt, 1994; Walker, Greenwood & Hard, 1994).

또한, 빈곤이라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불이익이 어떻게 아동들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체계적 설명을 시도한 연구들(DeLongis, Coyne, Dakof, Folkman, & Lazarus, 1982; Felner, DuBois & Adan, 1995; McLoyd, 1990)은 빈곤이나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아동이나 청소년의 발달적 측면에 있어서 생태학적 관점(Bronfenbrenner, 1979)으로 뚜렷하게 개념적인 구분을 해야한다고 보았다.

이에, Felner 등(1995)은 생태학적 관점을 가지고 가족의 빈곤상황이 아동과 청소년들의 적응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불이익의 영향을 설명하는 ‘생태학적 중재모형(ecological-mediational model)’을 검증하였다. 여기서는 빈곤 가정의 사회경제적 취약점(socioeconomic disadvantage)-부모의 직업 및 교육적 배경-과 아동의 근환경적 경험(proximal environmental experiences)-가족의 분위기,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분위기, 사회적지지, 생활사건 등-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건강증진을 모토로 하고 있는 현 보건의료상황에서 볼 때, 빈곤이 발생시키는 개인, 가족, 그리고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주요어 : 학령기 아동, 자존감, 빈곤가족, 정서적 가정환경, 부모-자녀 갈등

1) 제주한라대학 간호학과(교신저자 E-mail: khk@hc.ac.kr)

투고일: 2003년 6월 13일 심사완료일: 2003년 7월 3일

전체적 접근을 통한 증재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방안은 연구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빈곤 아동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안내하는 기초연구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elner의 생태학적 증재모형에서 강조한 사회경제적 취약성은 빈곤기간으로 근환경적 경험은 '부모-자녀 갈등' 및 '정서적 가정환경'으로 연역하여 이러한 요소들과 학령기 아동발달의 기초가 되는 자존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는 빈곤가족에서의 학령기 아동의 자존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포괄적인 가족간호 증재 프로그램 개발에 필수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빈곤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학령기 아동들의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목적을 갖는다.

- 빈곤가족에서의 정서적 가정환경, 부모-자녀 갈등 및 학령기 아동의 자존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 빈곤가족에서의 정서적 가정환경, 부모-자녀 갈등 및 학령기 아동의 자존감의 관계를 파악한다.
- 빈곤가족에서의 학령기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한다.

용어의 정의

· 가족빈곤 기간

가족이 빈곤에 노출된 기간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대상아동을 중심으로 빈곤에 노출된 기간을 확인하도록 연구자가 제작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이다.

· 정서적 가정환경

아동에게 미치는 빈곤의 부정적 영향을 비공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족의 정서적인 지지와 참여 정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용 HOME Inventory(Caldwell & Bradley, 1985)의 정서적 반응 척도, 성장독려 척도, 정서적 분위기 척도, 적극적 자극 마련 척도 및 가족의 참여도 척도로 측정된 점수이다.

· 부모-자녀간의 갈등

물질적 궁핍으로 인해 마찰, 충돌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아동의 입장에서 인식한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의

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Conflict Tactics Scales(Straus, 1990)를 사용하여 갈등의 발생빈도를 측정된 점수이다.

· 자존감

아동이 가족 및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느끼는 감정의 적절성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Hare Self-Esteem Scale(Hare, 1985)을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이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01년 2월5일부터 3월20 사이에 제주지역 19개 초등학교 학생 중에서 중식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 중에서 현 지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내에 있다고 확인된 가정의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가보고법 및 가정환경에 대한 관찰을 이용하였으며, 조사는 연구자 및 각 가정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있는 동사무소 사회 복지 요원과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의 협조와 참여에 의해 수행되었다.

분석과정에서 미흡한 자료를 제외시킴으로 최종 167명에 대한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다.

· 가족 빈곤 기간

아동이 빈곤에 노출된 기간을 기준으로 '아동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동이 태어난 때부터', '아동이 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그리고 '아동이 입학 후부터'로 구분하여, 아동의 부모에게 응답하도록 하여 가족 빈곤의 기간을 측정하였다. 빈곤기간이 가장 긴 '아동이 태어나기 전부터'가 가족빈곤 기간 점수가 가장 낮고, 순서대로 하여 빈곤 기간이 가장 짧은 '아동이 입학 후부터'가 가족빈곤 기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즉, 점수가 낮을수록 빈곤기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정서적 가정 환경

정서적 가정환경이란 가족의 정서적인 지지와 참여 정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용 HOME Inventory(Caldwell & Bradley, 1985)의 정서적 반응척도, 성장독려 척도, 정서적 분위기 척도, 적극적 자극 마련 척도 및 가족의

참여도를 번역한 후 사회복지사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설명이 부적절한 문항을 삭제하거나 설문항목의 용어나 문장을 수정·보완한 총 39개 문항의 2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1 이었다.

• 부모-자녀 갈등

이는 물질적 궁핍으로 인해 마찰, 충돌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아동의 입장에서 인식한 부모-자녀간의 갈등의 빈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Conflict Tactic Scale(Straus, 1990)를 아동들의 이해 수준에 맞게 번역한 총 28문항의 6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낮을수록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적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는 .82 이었다.

• 자존감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Hare Self-Esteem Scale(Hare, 1985)를 번역한 후 아동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용어나 문장을 수정한 후 총 39 문항의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친구, 부모 및 선생님과 함께 할 때나 학교생활에서 어떤 기분이 드는지를 담임교사가 아동에게 질문한 후 직접 표기하게 하거나, 선생님이 표기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는 .96 이었다.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C+ 11.0을 이용하여 서술통계 그리고 관련 변인간의 영향 정도는 Hierarchical Stepwis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56.3%로 응답한 167명 중 94명 이었으며,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대상 가족의 식구 수가 5명 이상인 가족은 응답 가족 167가구 중 41가구(25.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은 2~4인 가족으로 응답 가족 167가구 중 122가구(73.1%)였다. 아동의 부모 양쪽 모두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는 44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26.3%, 한부모와 살고 있는 경우는 82명(49.1%), 그리고 부모 양쪽 모두 없이 살고 있는 경우는 41명(24.6%)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부분 고졸이하(93.7%)였으며, 초졸 및 초졸 이하는 응답한 109명 중 45명(41.3%)이었으며, 아버지의

학력 또한 대부분 고졸 이하(90.1%)였다. 아버지의 나이는 평균 42세이며, 어머니의 나이는 평균 38세였으며, 부모 모두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에서 아동을 돌보고 있는 보호자의 평균 연령은 68세였다.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응답 대상자의 어머니의 경우 72.5%, 아버지의 경우 67.2%가 중졸이하의 학력이었다.

그리고, 빈곤 기간에 대한 조사 결과 ‘아동이 태어나기 전부터’라고 응답한 가족은 33가족으로 전체 19.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아동이 태어날 때부터’라고 응답한 가족은 29가족(17.4%), 그리고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라고 응답한 가족은 45가족으로 전체 26.9%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응답한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인 가족이 47가족으로 전체의 28.1%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갈등, 정서적 가정 환경 및 자존감 정도

주요 연구 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는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부모-자녀 갈등의 평균은 1.06(SD=±0.58)으로 나타났고, 정서적 가정 환경의 평균은 22.65(SD=±8.47)로 나타났다.

정서적 가정 환경의 하부 영역별 내용을 살펴보면, 정서적 측면은 평균 6.80(SD=±8.47)으로 정서적 측면의 문항 중에서 ‘자녀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하도록 격려한다’, ‘의사 소통시 부모가 자녀에게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 와 ‘긍정적 감정이 전달되도록 한다’라는 항목이 점수가 높았으며, ‘대화시 의사 소통의 정확성을 위해 완전한 문장을 사용한다’, ‘자녀에 대한 일상적인 계획을 세운다’라는 항목이 점수가 낮았다.

아동의 성장 독려 측면은 평균 5.02(SD=±1.99)로 이의 문항 중에서도 ‘가족이 아동 스스로 정리 정돈을 하도록 요구한다’와 ‘부모가 일반 예절을 지킨다’는 항목이 점수가 높았으며, ‘부모가 가족의 규율을 정하고 적용하고 일관성을 유지한다’라는 항목이 점수가 낮았다.

그 밖에, 정서적 분위기 측면은 평균 4.72(SD=±1.93), 적극적인 자극 마련 측면은 평균 3.66(SD=±2.13), 가족 참여도 측면은 평균 2.60(SD=±1.54)이었다.

아동의 사회 심리적 기능으로서의 자존감은 평균 2.74(SD=

<표 1> 연구 변인의 서술적 통계

변 인	범 위	평균±표준편차
부모-자녀 갈등	0 ~ 5	1.06±0.58
정서적 가정환경	0 ~ 39	22.65±8.47
정서적 측면	0 ~ 10	6.80±2.99
아동의 성장독려	0 ~ 7	5.02±1.99
정서적 분위기	0 ~ 8	4.72±1.93
적극적 자극 마련	0 ~ 8	3.66±2.13
가족 참여도	0 ~ 6	2.60±1.54
자존감	1 ~ 4	2.74±0.56

±0.56)이었다. 이의 문항 중에서도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할 때 ‘부모님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2.9074±.97040), 학교생활에서는 ‘나는 학교에 입학한 이래 늘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 같다’(3.1687±.97009) 라는 항목이 점수가 높았다. 반면에, 친구들과 함께 할 때 ‘내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지도자로 뽑힐 수 있을 것이다’(2.0599±.89645) 와 학교 생활에서 ‘나는 학교에서 중요한 사람이다(2.3174±.87185)’는 점수가 낮았다.

빈곤 가족에서의 학령기 아동의 자존감과 연구 변인과의 상관관계

빈곤 가족에서의 학령기 아동의 자존감과 이와 관련한 연구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부모-자녀 갈등이 적을수록 아동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r=-.238, p<.01$)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정서적 가정 환경과 자존감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r=.497$)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빈곤 환경에 대한 일반적 특성 중에서 빈곤 기간이 아동의 자존감과 유의한 상관관계($r=.223, p<.01$)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표 2> 연구 변인간의 상관관계

	부모-자녀 갈등	정서적 가정 환경	자존감
정서적 가정 환경	-.308**		
자존감	-.238**	.497**	
빈곤 기간	-.116	.205**	.223**

**p < .01

빈곤 가족에서의 학령기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회귀 분석

빈곤 가족에서의 학령기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Hierarchical Stepwis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 아동의 자존감을 설명하는 최종변인으로는

<표 3> 빈곤 가족에서의 학령기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회귀 분석

변수	β	R Square	Change R Square	F
정서적 가정 환경	.446	.247		52.255***
부모-자녀 갈등	-.092	.256	.009	27.181***
빈곤 기간	.111	.268	.012	19.145***

*** p<.000

정서적 가정 환경, 부모-자녀 간의 갈등, 그리고 빈곤 기간 순으로 도출되었다. 이 3가지 요인들 즉, 정서적 가정 환경, 부모-자녀간의 갈등 그리고 빈곤 기간이 아동의 자존감을 26.8%를 설명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중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은 정서적 가정 환경으로 아동의 자존감을 24.7%로 설명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빈곤기간, 부모-자녀 갈등 순이었다($F=19.145, p=.000$).

논 의

빈곤가족에서의 학령기 아동의 자존감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한 본 연구결과, 빈곤가족의 가정환경 실태 및 학령기 아동의 자존감 정도를 확인하였으며,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들을 파악하였다.

연구 대상 아동의 가정환경에서 부모 양쪽 모두 없이 살고 있는 경우는 41명(24.6%)이었는데, 부모 부재 이유는 사망, 이혼, 가출 및 행방불명이었다. 이는 대상 아동에 있어서 그들의 가족 구조 상 취약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장치나 가족중재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대상 아동의 부모학력에서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응답 대상자의 어머니의 경우 72.5%, 아버지의 경우 67.2%가 중졸이하의 학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교육수준이 직접적으로 낮은 가구소득과 연결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는 특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빈곤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가정한 빈곤 기간, 즉 만성적 빈곤에의 노출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인 가족이 47가족으로 전체의 28.1%로 현재 아동이 학령기인 것을 감안할 때, 현재 응답 가족의 3분의 2 이상이 7년 이상의 빈곤기간을 지내왔음을 알 수 있었다. 만성적 빈곤(chronic poverty)은 일시적 빈곤(transitory poverty)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이는 불량한 건강상태, 부적절한 주거 환경, 부랑, 환경적 유해요인, 폭력적인 이웃, 학업상실 등과 같은 열악한 결과를 낳는다(김순영, 1995; 김영모, 1990; Huston, 1998)는 것과, 아동은 이러한 환경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다는 사실, 즉 가정환경이 영아사망률, 전염병 이환률, 그리고 아동기 사고 및 사망 등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지적발달과 학업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Barra, 1998; Bradley, Mundfrom & Whiteside et al.; Bolger & Patterson, 1995; Garrett & Ferron, 1994; Gutman & Eccles, 1999; Huston, McLoyd & Coll, 1994; Leadbeater & Bishop, 1994; Seidman, Allen & Aber et al., 1994)는 것을 생각할 때, 경제적 스트레스 하에 있는 가족,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한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아동

들을 위한 지지적 환경에 대한 관심은 시급하다 하겠다.

주요 연구 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 결과 대상자의 부모-자녀 갈등의 평균은 1.06($SD=\pm 0.58$)이었고, 정서적 가정 환경의 평균은 22.65($SD=\pm 8.47$)이었으며, 아동 자존감 정도는 평균 2.74($SD=\pm 0.56$)이었다.

정서적 가정 환경의 하부 영역별 내용을 살펴보면, 정서적 측면은 평균 6.80($SD=\pm 8.47$), 아동의 성장 독려 측면은 평균 5.02($SD=\pm 1.99$), 그 밖에, 정서적 분위기 측면은 평균 4.72($SD=\pm 1.93$), 적극적 자극 마련 측면은 평균 3.66($SD=\pm 2.13$), 가족 참여도 측면은 평균 2.60($SD=\pm 1.54$)이었다.

가족은 학생의 태도와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독특하고도 가장 영향력 있는 힘이다(김병성, 1995). 이러한 가족의 아동성장 촉진력(family effect)은 세대를 이끌어갈 아동의 성장을 좌우하는 가족과정(family process) 요소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과정 요소로서의 가족의 아동성장 촉진력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으로 가정의 정서적 환경과 부모-자녀 갈등을 선택하였다. 특히, 빈곤이라는 경제적 위기 상황은 가족기능의 균형을 적절히 할 수 있는 정서적 환경의 여건이 갖추어지지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변인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경제적 위기는 부모에게 긴장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부모는 아동의 건강상태를 돌보지 않거나, 자녀들을 부적절하게 양육하여, 결국 아동에게 만성적 건강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학령기 아동인 경우 학교에서의 학습성취나 교우관계 등이 부모들의 요구와 상충되어질 수 있으며, 직장을 가진 어머니인 경우 아동들을 보살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함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불만족을 초래하게 된다(고순이, 1990; 권현수, 1993; 문영희, 1996; 문현구, 1992; 이경희, 1996).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가족의 기능을 약화시켜 이로써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실제로 많다. Conger 등(1994)은 가족 갈등이 경제적 스트레스와 연계되어 청소년기의 정서·행동문제의 증상과 관련된다는 모델을 검증하였다. Vonnie C. McLoyd는 미국의 공황시기였던 1930년대와 1980년대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연구들을 고찰하여 미국의 경제적 상황에서 보았을 때 가장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흑인계 미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직업과 수입의 상실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여기서는 몇 개의 직접적인 효과가 밝혀졌으나, 대부분은 간접적이거나 매개적인 효과로써, 경제적인 상실(economic loss)이 아버지의 행동과 기분을 낚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father mediation)는 것이다. 경제적인 상실로 신경질적이고 비판적이 된 아버지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덜 온순하고, 더욱 징벌적이고 독단적이 된다. 이는 아버지-자녀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가족의

청소년은 아버지의 가혹함 때문에 아주 심한 사회·정서적 스트레스를 겪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무직인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 거부적이고, 독단적이 되는 경향이 높는데, 이는 아버지-자녀간의 관계에 긴장을 가져오고, 자녀에게 역할모델로서의 매력, 연대감, 신뢰감을 상실하며, 자녀는 이로 인해 그의 동료나 다른 어른들과의 사교성에 장애를 겪는다.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은 자녀들의 사회·정서적 문제, 일탈행동, 포부나 기대의 감소문제, 신체적 건강 등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상은 현시대와는 사회구조적 맥락이 다른 대공황 시기의 연구의 결과를 고찰한 것이므로, 이 시대에 주로 가족의 경제를 담당하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족의 역동성이 설명되었다. 현 시대에는 많은 가정에서 경제적 책임을 어머니가 단독 혹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으므로, 위의 고찰에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빈곤 가족의 역동성을 그대로 어머니와 자녀간에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기초가 되는 Felder(1995)의 생태학적 중재모형에서는 빈곤 가정에 있어서 가족과정 요소에 해당하는 가족의 분위기, 부모의 양육태도를 아동의 근환경적 경험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빈곤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매개적 요인으로 설정한 아동의 근환경적 경험을 중재의 근거로서 강조하고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빈곤가족의 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조사한 부모-자녀 갈등의 빈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정서적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 아동들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나 계획적인 양육에 대한 노력 부분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령기 아동의 자존감 정도의 점수 또한 높은 편이 아니었다.

이는 빈곤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의 근환경적 경험을 증진시킴으로써 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프로그램이 개발 적용되어야 함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과 이와 관련한 연구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결과 부모-자녀 갈등이 적을수록, 그리고 정서적인 가정 환경이 좋을수록 학령기 아동의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빈곤 환경에 대한 일반적 특성 중에서 빈곤 기간이 길수록 아동의 정서발달의 지표가 되는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아동의 자존감을 설명하는 최종변인으로는 정서적 가정 환경, 부모-자녀 간의 갈등, 그리고 빈곤 기간 순으로 도출되었다. 이 3가지 요인들 즉, 정서적 가정 환경, 부모-자녀간의 갈등 그리고 빈곤 기간이 아동의 자존감을 26.8%를 설명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중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은 정서적 가정 환경으로 아동의 자존감을 24.7%로 설명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빈곤기간, 부모-자녀 갈등

순이었다($F=19.145, p=.000$).

즉, 이는 선행연구의 생태학적 중재모형(Felner, 1995)에서 매개적 요인으로 설정하여 중재로서 강조한 바 있는 아동의 근환경적 경험에 해당하는 정서적 가정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입증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빈곤기간이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설명력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에 따른다면 Felner가 근환경적 경험을 강조한데 반해,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의 경제적 맥락과 같은 좀 더 넓은 환경 그 자체 또한 중재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 만성적 빈곤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아동의 자존감은 손상될 수 있으며, 결국 빈곤 속에서는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간호에서는 빈곤 환경의 만성화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적 전략을 빈곤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발달중재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빈곤가족에서의 학령기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시도된 횡단적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서, 2001년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총 167명의 제주도 내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도구는 초등학교용 HOME Inventory(Caldwell & Bradley, 1985), Conflict Tactics Scales(Straus, 1990) 와 Hare Self-Esteem Scale(Hare, 1985)이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연구 대상 아동의 부모-자녀 갈등의 평균은 1.06($SD=\pm 0.58$)이었고, 정서적 가정 환경의 평균은 22.65($SD=\pm 8.47$)이었으며, 아동 자존감 정도는 평균 2.74($SD=\pm 0.56$)이었다.
- 빈곤가족에게 있어 부모-자녀 갈등이 적을수록 아동의 자존감이 높아지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r=-.238, p<.01$)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정서적 가정환경과 자존감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r=.497$)를 나타내었다. 또한, 빈곤 환경에 대한 일반적 특성 중에서 빈곤 기간이 아동의 자존감과 유의한 상관관계($r=.223, p<.01$)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 회귀분석 결과, 정서적 가정 환경, 부모-자녀간의 갈등 그리고 빈곤 기간이 아동의 자존감을 26.8%를 설명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중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은 정서적 가정 환경으로 아동의 자존감을 24.7%로 설명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빈곤기간, 부모-자녀 갈등 순이었다($F=19.145, p=.000$).

이상의 빈곤가족에서의 학령기 아동의 자존감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한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빈곤가족의 학령기 아동의 정상적인 자존감 발달을 위해서는 선행연구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동의 근환경적 경험에 해당하는 정서적 가정환경을 적절히 조성해 주기 위한 제반 노력과 함께 가족의 경제적 맥락과 같은 좀 더 넓은 환경 그 자체 또한 중재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본 연구는 빈곤이 아동의 발달을 좌우하는 유력한 결정 인자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빈곤이란 아동의 가족적 배경으로서가 아니라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직접적인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초로 앞으로는 빈곤가족의 아동을 위한 중재에 대한 간호연구가 활성화되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빈곤가족의 중재에 있어서 정서적지지, 갈등해결방법, 의사소통 기술의 증진 등에 대한 부모됨(Parenting)을 지지해야 하겠으며,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나 이웃환경의 개선 등의 빈곤가족의 사회구조적 환경의 개선을 위한 간호실무의 책임의 당위성을 수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확대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에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대단위의 자료수집을 통해 학년, 성, 지역, 가족구조, 발달 성과를 구분하여 결정과정의 경로를 비교 검증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에서 확인된 빈곤가족에서의 학령기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 고려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빈곤에 대한 접근에 있어 간호에 있어서도 정책연구로의 연결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희경 (1997). 간호의 책임 : 빈곤 속의 아동. 제주한라대학 논문집, 21, 110-122.
- 강희경 (1999). 학령기 자녀를 둔 빈곤가족의 스트레스: 일 지역 빈곤가족의 실태와 경험을 중심으로. 아동간호학회지, 5(2), 185-197.
- 강희경 (1999). 빈곤의 개념분석. 한양대학교 간호발전연구소지, 4(1), 2-13.
- 고순이 (1990). 도시 빈곤 모자가정 실태와 복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공한옥 (2000). 학급내 교사-학생 상호작용과 교육불평등 형성 과정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현수 (1993). 빈곤극복을 위한 사회 관계망에 관한 연구. 경 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영희 (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 적 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현구 (1992). 도시 빈민의 불안정취업과 빈곤 재생산에 관 한 고찰. 문화연구원.
- Amaya, M. A., Ackall, G., Pingitore, N., Quiroga, M., Terrazas-Ponce, B. (1997). Childhood Lead Poisoning on the US-Mexico Border: A Case Study in Environmental Health Nursing lead Poisoning, Public Health Nursing, 14(6), 353-360.
- Avand, D. M., & Chance, G. W. (1994). Canada's poorest citizens: looking for solutions for children, Canada Medical Association Journal, 151(4), 419-422.
- Barra, X. (1998). Poverty: The Main Cause of Ill Health in Urban Children, Health Education & Behavior, 25(1), 46-59.
- Blackbund, E., Sorlie, P. D., Johnson, N. J. (1996). The Shap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Mortality in the United States, Annuary Epidemiology, 6, 12-20.
- Bradley, R. H., Whiteside, L. Mundfrom, D. J., Casey, P. H., Kelleher, K. J., Pope, S. K. (1994). Early Indications of Resilience and Their Relation to Experiences in the Home Environments of Low Birthweight, Premature Children Living in Poverty, Child Development, 65, 346-360.
- Brown J. L., Pollitt, E. (1996). Malnutrition, Poverty and Intellectual Development, Scientific American, 85, 38-43.
- Caldwell, B. M., Bradley, R. H. Home Inventory for Families of Elementary Children, Wong and Whaley's Clinical Manual of Pediatric Nursing, 1-34.
- Hoskins, R., Lakey, T. (1997). Till death us do part, Nursing Times, 93(32), 27-30.
- Huston, A. C. (1994). Designing Research to Affect Policy, Social Policy Report, 8(2), 1-15.
- Huston, A. C., McLoyd, V. C., Coll, C. G. (1994). Children and Poverty: Issues in Contemporary Research, Child Development, 65, 275-282.
- McLoyd, V. C. (1989). Socialization and Development in a Changing Economy: The Effects of Paternal Job and Income Loss on Children, 44(2), 293-302.
- McLoyd, V. C., Jayaratne, T. E., Ceballo, R. Borquez, Julio. (1994). Unemployment and Work Interruption among African American Single Mothers: Effects on Parenting and Adolescent Socioemotion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5, 562-589.
- Nelson, M. A. (1994). Economic impoverishment as a health risk: Methodologic and conceptual issues, Adv Nurs Sci, 16(3), 1-12.
- Phillips, D. A., Voran, Miriam., Kisker, Ellen., Howes, C., Whitebook, M. (1994). Child care for Children in Poverty: Opportunity or Inequity?, Child Development, 65, 472-492.
- Pollitt, E. (1994). Poverty and Child Development: Relevance of Research in Developing Countries to the United States, 65, 283-295
- Walker, D., Greenwood, C., Hart, B., Carta J. (1994). Prediction of School Outcomes Based on Early Language Production and Socioeconomic Factors, Child Development, 65, 606-621

Self-Esteem of the Schooler of Families in Poverty

Kang, Hee-Kyung¹⁾

1) Department of Nursing, Cheju Halla Colle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the self-esteem of the schooler of families in poverty. A descriptive, correlational, and cross-sectional study design was use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February to March, 2001. Convenient sampling was done from 194 subjects living in Jeju Do, but 167 subjects among these were used for the study analysis. Hierarchical Stepwise Regression was used to identify significant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In general, self-esteem status of the schooler in poor families was relatively poor. In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self-esteem status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emotional

home environment, duration of poverty and frequency of parent-child tactics. These variables explained 26.8% of the variance of schooler's self-esteem. Conclusively, it is recommended that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for schooler in poor family should be a focus to enhance the economic context as well as family effect.

Key words : Schooler, Self-esteem, Poor family, Emotional home environment, Parent-child tactic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ang, Hee-Kyung

Department of Nursing, of Cheju Halla College

1534, Nohyung-dong, Jeju City, Jeju-do 690-708, Korea

Tel: +82-64-741-7658 Fax: +82-64-741-7639 E-mail: khk@hc.ac.kr